

SKT, 독자 LLM 키웠다… 산업·반도체 잇는 AI 생태계 구축

〈거대언어모델〉

자체 AI 모델 ‘A.X K2’ 공개
매개변수 6880억개로 성능 고도화
벤치마크 점수 전작보다 32%P↑
제조 현장 적용·바이오 협력 확대
국산 NPU서 자체 모델 구동 실증
독과모 선정 땀 공공·산업 확산

SK텔레콤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앞세워 국산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자 AI 모델 성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제조·바이오 산업에 실제 적용하고 국산 AI 반도체와의 연동까지 추진하며 AI 풀스택 경쟁력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계기로 국내 AI 주도권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자체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를 공개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과모) 사업 선정을 앞두고 성능을 대폭 끌어올



SK텔레콤 초거대 AI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

/SK텔레콤

린 최신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매개변수(파라미터)를 6880억 개까지 확대하고 국내의 AI 성능 평가(벤치마크) 13종 평균 점수를 전작보다 32.2%포인트 높였다. 장문 이해와 지시 수행 능력도 83.9% 수준으로 향상됐다. SK텔레콤은 최근 공개된 알라바바큐

웬(Qwen) 3.5와 딥시크 V4 등 중국 최신 오픈소스 모델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LLM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글로벌 AI 경쟁이 모델을 넘어 국가 경쟁력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AI와 구글, 메타는 물론 중국

기업들까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독자 모델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정부의 독과모 사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에 선정되면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바탕으로 모델 성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 SK텔레콤도 이를 기반으로 자체 모델을 공공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현장 적용도 본격화한다. 내년 하반기 제조업 특화 AI 에이전트 데모 버전을 KG스틸 당진공장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코넥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SK바이오팜과 난치성 암 표적 치료제 개발을 위한 AI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AI 모델 공급을 넘어 기업 데이터를 연결하는 AI 플랫폼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기 모델 공급 이후 데이터 연동과 보안, 시스템 운영까지 제공하면서 기업 고객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에서 자체 AI 모델 구동 실증을 진행하며 국산 AI 반도체 기반 소버린 AI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서 2023년에는 자회사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의 합병을 지원하며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실었다.

글로벌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일본 NTT, 대만 중화텔레콤과 총 7600억원 규모의 ‘카탈라이트 캐피탈’ 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 투자와 기술 확보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AI 모델과 산업 적용, AI 반도체를 연결하는 ‘AI 풀스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AI 경쟁은 모델뿐 아니라 컴퓨팅 인프라와 반도체, 산업 적용 사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며 “AI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기업이 플랫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국내 전선업계, 해저케이블 포설선 확보전

설치 수요 2028년까지 9.5배 급증
고사양 선박 최대 40척 추가 필요
생산·시공 결합 턴키 사업 확대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설치수요가 급증한 반면 이를 시공할 고사양 포설선은 부족해 사업 병목이 심화하고 있다. 포설선 확보가 수주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전선업계도 생산과 시공을 결합한 턴키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글로벌 에너지 데이터 기관 에너지 솔루션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저케이블 설치 수요는 지난 2020년 1932km에서 오는 2028년 1만8173km로 9.5배 늘어날 전망이다. 고사양 포설선은 60~7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항 가능한 선박은 50~60척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 2028년까지 투입 일정이 잡혀 있어 신규 수요 대응에 25~40척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포설선 부족으로 건조 가격은 지난 2020년 1억7000만 유로에서 올해 2억4000만 유로 이상으로 41% 올랐고, 일일 용선료도 8만~13만 달러로 4배가량 뛰었



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

/LS마린솔루션

다. 설치비 비중 역시 전체 공사비의 12~18%에서 30~38%로 확대되면서 오르스 테드 등 개발사의 투자 결정 연기와 사업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포설선 공급은 핵심 장비인 텐서너캐러셀의 24개월 이상 납기와 제한된 건조 조선소, 조선사들의 LNG선·방산 선박 우선 건조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고 있다.

발주처는 포설 중 손상 위험과 책임 공방을 줄이기 위해 제조사의 턴키 시공을 선호한다. 무겁고 굵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은 해저 지형과 조류의 영향으로 손상되면 재제작 비용과 납기 지연이 발생하는 만큼 구조와 허용 장력

을 가장 잘 아는 제조사의 직접 시공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LS마린솔루션은 적재량 1만3000톤급 HVDC 포설선을 건조해 오는 2028년 상반기부터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도 후에는 적재량을 7000톤으로 늘린 GL2030과 함께 총 4척, 이 가운데 대형 포설선 2척을 운용한다.

대한전선은 최근 1만톤급 포설선 ‘스칸디나비아’호를 확보해 기존 ‘팔로스’호와 2척 체제를 구축했다. 다만 HVDC 해저케이블 직접 시공 실적은 없어 트랙레코드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HVDC 해저케이블 시장은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프랑스 넥상스, 한국 LS전선, 덴마크 NKT 등 4개사가 약 85%를 차지하며 모두 자체 포설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프리즈미안은 1만7000톤급 레오나르도 다빈치’호 등 대형 포설선 5~6척을 운용하며 신조선을 추가 건조 중이고, 넥상스는 ‘오로라’와 ‘일렉트라’를 투입했다. NKT도 1만톤급 이상 차세대 포설선 ‘엘레오노라’ 건조를 추진하며 보조선을 포함한 2~3척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중진공·신보, 中企 글로벌 진출 지원 맞손

정책자금·보증 연계해 자금조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신보와 30일 대구에서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및 신보 보증 연계를 통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 ▲국내의 금융제도 연구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 과정에 걸쳐 정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신보의 보증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을 바탕으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오른쪽)이 강승준 신보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추가로 중진공의 해외 인프라와 신보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유망 기업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및 KSC(K-스타트업센터) 등 해외거점을 활용해 현지 정착 지원부터 투자유치·사업화까지 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 간 상호 협력 및 유관기관 간 접점을 확대한다.

/김승호 기자 bada@

NC AI·씨메스로보틱스, 제조·물류 피지컬 AI 맞손

월드모델·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결합
산업 데이터 기반 학습·현장 실증

NC AI가 제조·물류 산업에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AI 기반 로보틱스 전문기업 씨메스로보틱스와 협력한다.

NC AI는 씨메스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기반 공동 연구개발과 상호 기술 공유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AI 기술과 로보틱스 역량을 결합해 제조·물류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차세대 피지컬 AI 기반 로보틱스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앞으로 ▲피지컬 AI 기반 공동 연구개발 ▲핵심 기술 및 연구 성과 공유 ▲차세대 로보틱스 솔루션 발굴 및 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NC AI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과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월드모델(World Model)과 로봇 범용 기능 구현을 위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이 주변 환

경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고도화한다.

씨메스로보틱스는 제조·물류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VFM)과 RFM, 정밀 로봇 제어 기술을 활용해 AI 모델의 산업 현장 실증과 고도화를 담당한다.

양사는 산업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AI 학습과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에 활용하고, 학습된 AI 모델을 다시 실제 로봇 시스템에 적용하는 선순환 개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기업전용 5G ‘안전관리 위치’ 선포

심박수·활동량·현장 환경 통합 분석

KT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지원에 나선다. KT는 기업전용 5G 부가 서비스 ‘안전관리 위치’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고객이 사용하는 전용 5G망은 별도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일반 네트워크와 기업 내부망을 분리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5G 전용 게이트웨이를 통해 개인 가입자를 위한 일반 통신망과 임직원을 위한 기업 내부망 접속 데이터를 분리한게 핵심이다.

안전관리 위치는 삼성전자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관리 솔루션’이 탑재된 기업전용 갤럭시 위치를

통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온도·습도 등 환경 정보와 근로자 심박수, 활동량 등 생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안전 관리 위치의 대표 기능은 SOS 요청, 낙상 및 추락 감지, 심박수 이탈 감지, 열스트레스 관리, 위험 구역 출입 관리 등이다. 안전관리 위치 사용자는 갤럭시 위치를 통해 심박수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주변 동료와 관리자에게 알린다. 안전 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는 물론 날씨·온도·위치 등 현장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